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가족 토요기도회:** 매월 첫째 토요일 7시 믿음방(이번 주 토요일)
- **청년부 1일 수련회:** 11월 2일(월) 10-20시 호텔KO 및 선우 음악학원 등
- **라합1나라 모임:** 11월 3일(화) 10시 30분 이수현 님 가정
- **빛나라 모임:** 11월 4일(수) 14시 강판연 님 가정
- **각 자치회는 11월 중 총회를 통해 2027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방문:** 이진석
- **출타:** 오수향, 김한진-박종희
- **생일:** 이미전, 김영희, 오경민, 크리스티안 쉬빌라
- **8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 및 인준 위한 공동의회:** 11월 22일 2부 예배 후, (장로, 여성 은퇴자, 안수집사, 권사,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대표 각 1인)
- **담임목사:** 유럽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목회자수련회(11.2-6, 피렌체)

◆말씀일기 일정

일/고후1:1-11	월/고후1:12-22	화/고후1:23-2:17	수/고후3:1-18
목/고후4:1-18	금/고후5:1-10	토/고후5:11-21	일/고후6:1-7:1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92독

◈ 예배위원 안내 ◈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예배기도	서영지	김진	김혜경	김학순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장혜진 강일구			
애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밥상 여섯

43-44호 **2026년 11월 1일**

Presbyterianische Missionsgemeinde Dusseldorf e.V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 년 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매월 첫째 토요일은 가족기도회)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 년 5 월 8 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5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72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314장	다 함 께
기도/Gebet		서영지 집사
찬양/Chor	오 놀라운 구세주	실버찬양단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고린도후서 1:1-11	인 도 자
설교/Predigt	**바울의 '여러분'**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341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시편 17:1-15 '소중한 유산' ◀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쌓아 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 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14, 새번역).

세습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 한 구절만 마음에 잘 새겨도 조국교회는 많이 달라질 텐데, 참 안타깝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님을, 그런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 달라는 기도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

시인과 같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히 11:13-14).

우리 교회에서 '말씀일기'를 시작한 것은 '귀한 유산 남기기 운동' 차원에서도 참 잘한 일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록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부모의 흔적보다 자식에게 더 소중한 유산이 있겠는가? 설사 주님 떠나 곁길로 가던 자식도 부모의 진솔한 믿음의 흔적을 접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나의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가의 흔적이다. 재산은 자녀에게 남겨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부모의 삶은 자녀의 마음과 다음 세대에 오래 남는다.

주님, 이 땅에서 받을 몫을 다 누리려 하기보다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믿음을, 이름보다 말씀을,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난 주 봉헌 내역(10월 25일-10월 31일)◀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김평님, 손교훈, 권순아, 두리쉬빌라, 김한진	윤영숙	김영희(생일) 무명1	손교훈(장학)
총액 1.005,20유로 = 예배당 905,20 + 온라인 100,00			